

현대패션에 나타난 최소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김 은 덕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의류학과

부교수 김 민 자

目 次

I. 서 론

II. 복식에 있어 최소표현기법의 특성에 대한 고찰

- 1. 예술에 나타난 최소표현
- 2. 복식에 나타난 최소표현의 개념
- 3. 복식에 나타난 최소표현의 조형성과 내적 의미

III. 20세기 이후 패션에 나타난 최소표현기법의 실증적 고찰

- 1. 1900년대~1950년대 패션에 있어 최소표현 지향의 역사적 흐름
- 2. 1960년대~1990년대 패션에 있어 최소표현기법의 분석

IV.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I. 서 론

20세기에 들어와 여러가지 사회·문화적 요인이 현대생활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자연 과학에서의 위대한 발견들, 급속한 산업화와 여성의 사회 참여 증대, 인구증가와 격동적인 도시의 발전 등은 모더니티(modernity)를 이루는 주요 구성요소가 되어 왔다.¹⁾ 이러한 현대적 환경에 기초하여 인간의 가치 체계와 행동구조 역시 큰 변혁을 맞

게 되었는데²⁾ 인간 생활에 있어 더욱 더 이성과 합리를 중시하고 단순성, 기능성, 실용성을 추구하게 된 것이 그 일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복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여서, 과학의 발달로 인한 기계·기술의 혁신은 복식에 있어 대량생산체제로의 이행을 가져왔으며 기계주의 생산에 적합하게 더욱 단순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대복식은 그 이전과는 달리 인체의 왜곡과 과장, 과잉 장식성에서 벗어나 인체의

1) 더 자세한 내용은 Marshall Berman, 윤호병·이만식(역), 「현대성의 경험」, (서울: 현대미술사, 1994), p. 13 참조.

2) 홍덕률, “산업화와 현대사회”, 고영복 편저, 「현대사회론」,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1994), p.69.

자연미를 표현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게 되었으며 가능성과 실용성에 역점을 두어 장식의 배제·단순성을 강조함으로써 더욱 복식에서의 모더니티를 이루게 되었다.

여러 복식사 관계 서적들은 복식에서 이러한 단순함의 추구가 절정을 이루었던 시기로 1960년대를 지적하고 있다.³⁾ 1960년대 중반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미술, 건축, 문학, 음악, 무용 등 여러 분야에서 단순성, 순수성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미니멀리즘이 등장하였는데 특히 조형예술 분야에 있어 미니멀리즘이란 최소의 조형수단과 최소의 제작 과정을 거쳐 표현을 최소화함으로써 대상의 단순성·순수성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최소표현기법을 적용한 예술사조이다. 그 당시 복식에서도 미니멀리즘의 추구가 두드러져 1960년대 복식의 특징적인 경향으로 단순한 실루엣, 칼라·슬리브 등 디테일의 생략, 나아가 장식이나 악세서리의 생략 등을 들 수 있다.

현대패션에서 이러한 경향은 계속 맥을 이어왔으며, 특히 최근 들어 Vogue지, Elle지, Collezioni지 등 여러 패션 잡지들은 90년대 패션의 주된 경향으로서 최소표현의 기법을 사용한 미니멀리즘 복식을 제시하고 있다. 92년 1월 Vogue지에서는 이 시기의 패션 경향을 한마디로 '순수함과 단순함'이라 요약하면서 '생략된 형태의 흰색 일색의 착장, 편안함의 추구' 등을 그 특징으로 지적하였다.⁴⁾ 뿐만 아니라 90년대 패션에 있어서 최소

표현기법을 적용한 대표적인 디자이너로서 Calvin Klein⁵⁾과 Azzedin Alaïa⁶⁾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이 발표한 흰색의 아주 단순한 형태의 미니 드레스⁷⁾나 라이크라로 만든 흰색 유니타드(unitard)⁸⁾ 또는 인체에 밀착되어 인체의 곡선을 그대로 드러내 주는 검정색 원피스⁹⁾나 바디수트(body suit)¹⁰⁾ 등은 최소표현기법을 적용한 대표적인 복식으로서 최근의 최소표현 지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험을 겨우 가릴 정도의 초미니 스커트나 핫팬츠, 배꼽을 노출한 작은 T셔츠 등 최소표현기법의 복식이 90년대 들어 전세계적으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널리 확산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도덕성 여부가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복식의 단순화·최소화 현상은 20세기 이래 모더니즘 복식 디자인에 있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60년대에는 시대적·보편적 양식으로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최근에 이러한 최소표현 지향은 하나의 뚜렷한 패션의 테마로 복고적 경향을 띄며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예술계에서도 최근 Dan Flavin, Robert Mangold, 이우환 등 국내·외 미니멀리즘 작가들의 작품이 활발히 전시되어¹¹⁾ 최소표현 지향에 대한 문화적 공감대를 환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복식에 있어 단순화·최소화를 특징으로 하는 최소표현기법의 복식에 대한 연구는 복식의 모더니즘의 일면을 이해하고 나아가 복식을 통하여 인간의 내적가치를 통찰하는데 의의있는 분야

3) David Bond, 「The Guinness Guide To Twentieth Century Fashion」, 정현숙(역), 「20세기 패션」, (서울: 경춘사, 1992), p.120.

4) 「Vogue」, 1991년 1월, p.118.

5) Ibid.

6) 「Vogue」, 1992년 5월, p.216.

7) 「Vogue」, 1992년 9월, p.344.

8) 「Vogue」, 1991년 9월, p.53.

9) 「Elle」, 1990년 2월, p.212~213.

10) 「Collezioni」, 1991/92, A/W, p.100.

11) Dan Flavin전 : 9월 6일~27일, 갤러리 서미, Robert Mangold전 : 9월 14일~10월 10일, 국제화랑, 이우환전 : 9월 3일~22일, 국립현대미술관 : 9월 5일~16일, 갤러리 현대, 인공갤러리, 진화랑, 김춘수전 : 9월 1일~9월 30일, 토탈미술관, 문법전 : 9월 7일~16일, 박영덕화랑, 청색전(김환기, 정상화, 석란희, 류혜영, 홍승혜, 이브 클라인, 시몬 한타이, 비알라 등) : 9월 9일~10월 9일, 환기미술관

라 생각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패션의 모더니즘의 일면을 이해하기 위하여 현대 패션에 나타난 최소표현기법의 복식을 고찰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형예술 분야에 있어 최소표현기법을 적용한 미니멀리즘의 발생배경과 개념 및 그 조형성과 내적 의미를 고찰하고, 둘째, 이를 바탕으로 복식에 있어 최소표현의 개념을 정의내려 보며 셋째, 최소표현 복식의 조형성과 내적의미를 살펴보고, 넷째, 20세기 이후 패션에 나타난 최소표현 복식의 배경 및 역사적 흐름을 실증적 자료와 함께 고찰함으로써 복식의 특수성으로 인한 복식과 타 조형 예술 분야와의 차이점을 이해하고자 한다. 사진자료는 1960년대에서 1994년까지의 미국 Vogue지와 1980년대 이후 Elle지, Collezioni지, Marie Claire지 등 1차 자료인 실제 패션잡지에서 선정하였으며 사진 선정시 그 기준은 ‘단순한(simple)’ ‘최소의(minimal)’ ‘작은(small, little, tiny)’ ‘짧은(short)’ 등의 단어로 설명된 사진을 중심으로 하였다.

II. 복식에 있어 최소표현기법의 특성에 대한 고찰

본 장에서는 현대패션의 조형적 특징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복식에서의 최소표현기법을 고찰하기에 앞서 먼저, 최소표현을 그 근본적 가치로 전개시키는 조형예술의 미니멀리즘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식에 있어 최소표현의 개념을 정의내려 보며 이러한 최소표현 복식의 조형성과 내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1. 예술에 나타난 최소표현

최소표현이 이미 예술에 있어서는 미니멀리즘으로 정립되어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조형예술 분야에 있어 최소표현기법을 적용한 미니멀리즘의 발생배경과 개념을 살펴보고 그 조형성과 내적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미니멀리즘의 발생배경 및 개념

단순성·순수성의 추구를 그 목적으로 하는 미니멀리즘의 태동은, ‘순수성의 지향’을 특징으로 하는 20세기 초 모더니즘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또한 미술사에 있어서 가장 최소한의 예술을 시도한 첫번째 예는 1913년 Malevich가 ‘흰 바탕에 검정색 사각형(Black Square on a White Ground)’을 그림으로써 최초의 절대주의 구성(Suprematist Composition)¹²⁾을 이룩한 것과 1914년 Duchamp이 레디 메이드(ready-made)의 ‘변기’와 ‘병걸이(Bottle-rack)’를 전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들은 전통적 서구 미술의 전제로부터 벗어나서 적나라하며 더 이상 축소시킬 수 없는 최소한의 예술을 시도함으로써 단순하고 명확하고 직접적인 예술에로의 길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서로가 공통점을 지닌다.

미니멀리즘은 1960년대 중반 경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이는 추상표현주의의 주관적 표현성에 대해 보다 더 객관적인 ‘실재’에 접근하려는 움직임이다. 따라서 미니멀리즘 작가들은 자기 표현은 곧 예술이라고 하는 종래의 예술 개념을 거부하는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이들은 엄격하고 비개성적이며 극단적인 간결성과 기계적인 엄밀성을 특징으로 하는 기하학적인 예술 형태를 구성하고자 노력하였다.¹³⁾

‘미니멀 아트’란 명칭은 영국의 비평가 Richard

12) 1913년 Malevich가 주창한 운동으로 어떤 감정이나 연상을 배제하고 ‘순수미술’을 추구하기 위해 단순한 기하학적 형상을 사용하고 있다.

13) 월간 미술편, 「세계미술용어사전」, (서울 : 중앙일보사, 1992), p.144.

Wölflheim이 1965년 '아트 매거진(Art Magazine)'지에 발표한 '미니멀아트론'¹⁴⁾에서 처음 쓰여진 이래 보편화되었다.¹⁵⁾ 'minimal'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옥스포드 사전에는 'very minute, the least possible'¹⁶⁾, 웹스터 사전에는 'smallest possible'¹⁷⁾이라고 각각 정의되어 있다. 이는 '최소의 혹은 극소의'라는 뜻으로 'Minimal Art'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최소의 예술'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조각이나 회화의 개념과는 달리 최소한의 제작과정을 거쳐 사물의 존재 즉 본질을 직접 드러내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니멀리즘은 표현의 주관성을 억제하고 원소처럼 궁극적으로 남게되는 본질적 요소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오브제를 그 성분적 요소까지 환원하여 보려는 특성을 지닌 예술 양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일루전을 극소화하고 대상 그 자체를 드러내 보이기 위한 미니멀 작가들의 시도는 현상학적인 방법을 통해 철저하게 단순화되고 더 이상 환원할 수 없는 최소한의 것을 제시하려 함으로써 작품의 색채, 형태, 구성을 극단적으로 단순화하여 기본적 요소로까지 환원하는 현대미술의 환원주의적 경향이 절정에 이른 것이다. 그리하여 전통적으로 미술의 제작에 사용되었던 많은 요소들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보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예술의 본질, 예술체험의 본질에로 향하는 시각을 열게 한 것이라

할 수 있다.¹⁸⁾

다시 말해서 미니멀리즘은 미술의 어떤 재현적 요소나 장식적 성격으로부터 벗어난 순수한 오브제로서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것이며 '예술을 위한 예술'과 같은 순수주의에의 표명이기도 한 것이다.

2) 미니멀리즘의 조형성과 내적의미

① 조형성

미니멀 아트의 조형적 특성으로는 단순성, 명료성, 비관계적 구성 등을 들 수 있는데 다음에서 그 각각을 살펴 보기로 한다.

가) 단순성

단순성은 미니멀 아트의 조형적 특성을 가장 잘 대변하는 단어로서, 형태의 단순화는 본질 추구의 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단순성은 예술에 있어서 목적은 아니다. 그러나 사물의 본질에 다가갈 때 자신도 모르게 단순성에 도달한다'¹⁹⁾라는 Brancusi의 언급에도 잘 나타나 있다. 미니멀 아트의 단순한 조형적 특성은 게슈탈트(gestalt)이론²⁰⁾과도 상관성을 보인다. '게슈탈트학파'에서는 조형의 개념을 전체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보며²¹⁾ 어떤 복잡한 현상이나 패턴을 볼 때 그것의 전체적인 모습(wholeness of aspect)이나 구조를 파악하려는 인간 심리는 단순화에서 온다는 것이다.²²⁾ 즉 부분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14) 20세기의 특수한 예술적 동향을 논한 논문의 제목. 이 논문에서 Duchamp의 기제품인 오브제, Reinhardt의 모노크롬회화, 그 밖에 Malevich, Rausenberg 등을 예로 들면서 의식적으로 미적 가치를 저감시킨 작품군을 가리키는 말로 썼다.

15) 하인수, "미니멀리즘(Minimalism)의 의미와 그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1986, p.3.

16) 『The New Oxford Illustrated Dictionary』,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p.1080.

17) 『Webster's Dictionary』, ed. John Gage Allee, Ottenheimer Publishers. Inc., p.1243. p.2013.

18) Kenneth Baker, 『Minimalism』, (New York : Abbeville Press, 1988), p.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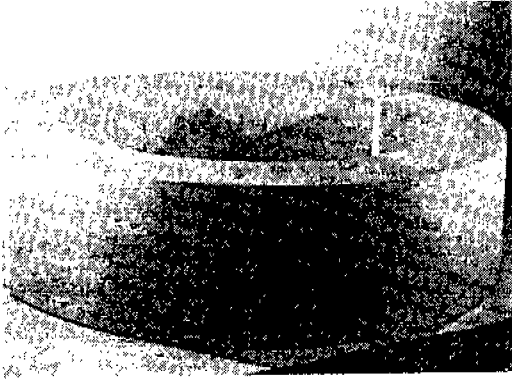
19) Sidney Geist, Brancusi, 『A Study of the Sculpture』, (N.Y. : Hacker Art Books, 1983), p.145.

20) 1900년경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들이 인간 행위에 있어서 형태 추구에 기초한 개념들을 확립한데서 시작한 게슈탈트 시각원리는 인간의 눈이 어떻게 시각 경험을 有機化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시각 이미지 분석에 대한 궁극적인 효능을 평가하게 해 주는 원리이다.

21) 진성모, "FASHION DESIGN의 조형적 특성과 그 실현 가능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 논문, 1987, p.i.

22) Rudolf Arnheim, 『미술과 시지각』, (서울 : 기린원, 1988).

전체로서의 형태지각을 중요시하고 있다.²³⁾ 이러한 게쉬탈트 이론에 대한 관심은 대표적인 미니멀 조각가인 Robert Morris와 Tony Smith의 작품에서 발견된다. (그림 1)



(그림 1) 미니멀리즘의 단순성
Robert Morris, 무제, 1966

나) 명료성

미니멀리즘의 또 다른 조형적 특징인 명료성은 명확한 형태와 명백한 경계선을 지닌 하드에지 회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하드에지 회화는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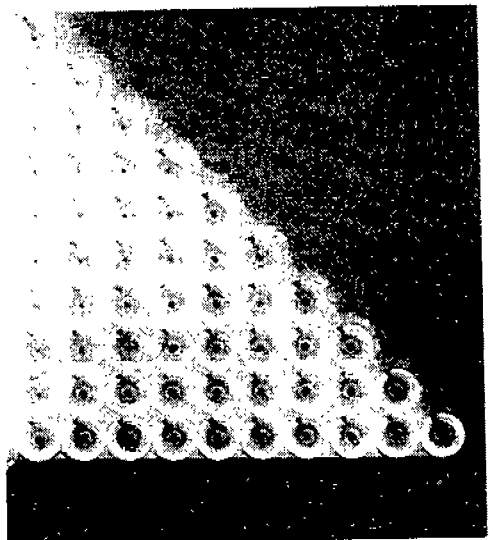


(그림 2) 미니멀리즘의 명료성
Donald Judd, 무제, 1972

순한 기하학적 형태를 반복한 것이 주류를 이루며 기하학적인 형태로 인하여 명료성, 엄격성을 지닌다. 또한 프라이머리 스트럭처에서 금속, 강철, 유리 등의 매끄러운 표면을 가진 공업재료가 종종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명료함과 기계적 엄밀성을 표출한다. (그림 2)

다) 비관계적 구성

비관계적 구성은 단일함이나 동일단위의 반복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비관계적 구성의 한 형태인 동일단위의 반복은 1960년대에 발달하였는데 이는 논리적으로 결정된 중심이 있다거나 여러 부분들에 의한 관련적 의미 즉 상관구도를 피하고 화면이 단일한 전체성(wholeness)를 갖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전체적 질서를 중시해서 완전하게 힘의 균형을 고려한 형태의 배치나 강조점 없이 동등한 비중을 갖는 격자무늬조직 혹은 색상의 변화가 없는 단색화면으로 형성되며 화면내에서 부분들의 관계보다는 총체적 조직을 강조했다. 이 경우 형태는 대비나 상호 영향을 미치는 작용을 하기보다는 반복과 연속성의 관계를 갖게 된다.



(그림 3) 미니멀리즘의 비관계적 구성
Dan Flavin, 무제, 1972

23) 진성모, op. cit., p.i.

이러한 동일단위가 반복된 작품의 표면은, Ad Reinhardt의 표면이 전무한 상태로 환원된 캔버스가 그러하듯이 관객의 시선을 집중시키기보다는 외부로 확산(unfocusing)²⁴⁾시키는 역할을 한다. Carl Andre의 철판이나 Dan Flavin의 형광등 또는 Sol Lewitt의 격자구조 등도 이러한 시각적 확장성을 띤 작품들이다. (그림 3)

② 내적 의미

미니멀 아트는 본질적으로 이미지나 수사(修辭)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나 수사를 만들어내는 원천적인 것에 관심을 표명하는 미술이므로²⁵⁾ 미술을 한 형태나 색채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환원시키며 작품의 색채, 형태, 구성을 극단적으로 단순화한다. 이는 신조형주의²⁶⁾자들의 '본질적인 요소는 수평선·수직선과 원색과 같은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생각과 맥을 같이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충분히 분석하고 단순화시키면 본질에 도달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²⁷⁾

미술평론가 Lucie Smith는 미니멀 아트와 특성이라 할 수 있는 본질을 추구하려는 순수성, 즉 단일한 색채, 단일한 형태 등으로 대상의 본연을 환원해서 보려는 특성을 색채 추상 안에서 그 근원을 찾아내고 있다.

색채 추상의 대표적 작가인 Ad Reinhardt의 캔버스는 회화적 성격보다는 오브제로서의 성격이 강조되며, 심지어는 아무것도 칠하지 않은 캔버스마저도 하나의 그림으로 보게 되었다.²⁸⁾ 표면이 전무한 상태로 환원된 캔버스는 회화로서보다는 3차원적 구조물로서의 물체적 성격을 지니게 됨으로써 그것은 회화가 아니라 벽에 걸린 사물로 관객에게 지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미니멀 아트는 전통적 의미의 회화나 조각이 아니며 이 오브제 개념을 사이에 두고 회화와 조각의 경계선을 와해시키고 있는 것이다.

<표 1> 미니멀리즘 미술 양식의 조형성과 내적 의미

조형성	내적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성(무장식) · 명료성(명백한 테두리, 각진 모서리, 기하학적인 선, 원색, 고명도의 선명한 색 등) · 비관계적 구성 <div style="margin-left: 20px;"> { <div style="display: inline-block; vertical-align: middle; text-align: center;"> 단일함 ↳ 반복법 → 무강조점 ↳ 시각적 확산 ↳ 무표정 · 무감각, 비활성 </div> }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현적 금욕성, 제작의 최소화 → 본질추구, 실재성 · 비재현적, 비대상적 → 개념적 · 부차적 발생 · 우연으로부터의 탈피 → 논리적 구조성, 필연성, 질서 중시 · 이성적, 객관적, 냉정함, 엄격함, 기계적 엄밀성 · 추상적 → 항구성

24) Lucie E. Smith, 「Late Modern」, 임영방, 김춘일(역), 「전후미술」, (서울 : 세운문화사, 1977), p.183.

25) 박용숙, "Object and Image", 「미대학보」, Vol. 8, 1978. p.77.

26) Rosemery Lambert, 이석우(역), 「20세기 미술사」, (서울 : 열화당, 1993), p.47.

27) Mondrian이 발전시킨 새로운 미술양식. 수평선과 수직선을 직각으로 짜맞추어 기하학적인 형태에 제한되어 있다. 삼원색을 주로 사용하였다.

28) Lucie E. Smith, 임영방, 김춘일(역), 「전후현대미술」, (서울 : 장학사, 1981).

2. 복식에 나타난 최소표현의 개념

‘최소표현’이란 용어는 최근 패션의 한 테마로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으나 복식에 있어서는 아직 그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 그 개념의 정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앞 절에서 살펴본 미니멀리즘의 최소표현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기로 한다.

미니멀리즘은 최소한의 조형수단과 최소한의 제작과정을 거쳐 단순하고 절제된 표현을 함으로써 대상의 본질을 추구하고자 하는 예술 사조이다. 따라서 미니멀리즘은 어떤 재형적 요소나 장식적 성격으로부터 벗어난 순수한 오브제로서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것이며, 순수주의에의 표명이기도 하다. 이러한 미니멀리즘에서의 최소표현이란 단순함, 명료함 그리고 비관계적 구성을 통한 무표정, 무감각함 등의 조형성을 창출함으로써 표현의 절제 즉 표현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복식은 직물이라는 조형재료에 인체를 전제로 한 인위적인 제작과정을 거침으로써 창조되는 시각적 조형물이며 복식디자인이란 선, 형, 색채, 재질 등의 디자인 요소와 디자인 원리에 입각한 일련의 제작과정을 거침으로써 美를 창조하는 조형예술활동이다. 그러므로 복식에 있어 최소표현이란 최소의 디자인 요소와 최소의 제작과정을 거쳐 단순한 표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복식이 시각적 조형물로서 예술과 공유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복식의 최소표현은 순수성의 추구라는 내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복식에서의 최소표현은 최소의 조형요소와 최소의 제작과정을 거침으로써 단순성, 순수성을 추구하는 것이라 정의내려 볼 수 있다. 또한 ‘기법’의 사전적 의미는 ‘기교와 방법 또는 기교를 나타내는 방법’이므로²⁹⁾ ‘최소표현기법’이란 ‘최소표현을 추구하기 위한 기교와 방법’,

다시 말해서 ‘최소의 디자인 요소와 최소의 제작과정을 거침으로써 단순성, 순수성을 추구하기 위한 기교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3. 복식에 나타난 최소표현의 조형성과 내적 의미

본 절에서는 제1절에서 살펴본 조형예술에 있어서 최소표현기법을 적용한 미니멀리즘의 조형성과 내적 의미를 바탕으로 하여 현대패션에 있어서 최소표현기법을 적용한 최소표현 복식의 조형성과 내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실증적인 자료와 함께 다음 장에서 논할 20세기 이후 패션에 나타난 최소표현기법의 분석에 기초가 될 것이다.

1) 조형성

최소표현 복식의 조형성은 디자인 요소인 선, 형, 색채, 재질 등의 최소화와 제작과정의 최소화, 적절한 제작기법의 선택 등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최소표현기법을 적용한 최소표현 복식의 외적 형식인 조형성을 디자인 요소의 측면과 제작과정의 측면, 제작기법의 측면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① 디자인 요소에 의한 최소표현기법

조형예술에 있어 디자인 요소는 선, 형, 색채, 재질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 각각에 의한 최소표현기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하겠다.

‘최소(最小)’의 사전³⁰⁾적 의미는 ‘[수나 정도 따위가] 가장 작음’이다. 이에 근거하여 디자인 요소인 선·형·색채·재질에 있어서도 ‘수’에 해당하는 ‘양’적인 측면과 ‘정도’에 해당하는 ‘질’적인 측면의 두가지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가) 선에 의한 최소표현기법

선에 의한 최소표현기법은 질적인 측면에서는,

29) 신기철, 신용철 편저, 「새우리말 큰사전」, (서울 : 삼성출판사, 1991), p.520.

30) Ibid., p.3290.

인체를 따라 흐르는 완만한 곡선이나 직선·사선 등 단순한 기하학적 선으로 이루어진 실루엣의 사용을 의미하며, 양적인 측면에서 있어서는 다이어트나 슬기 등 내부구조선의 절제를 의미한다.

나) 형에 의한 최소표현기법

형에 의한 최소표현기법이란 질적인 측면에서는, 인체를 따라 흐르는 완만한 곡선이나 단순한 기하학적인 도형의 사용을 의미하며, 양적인 측면에서는 형의 크기, 즉 면적의 최소화와 칼라·슬라이브 등 디테일의 최소화, 패턴의 최소화 등을 들 수 있다.

면적의 최소화란 노출 면적을 증가시킴으로써 인체의 표면을 그대로 드러내어 자연스러운 인체 그 자체를 소재로 받아들여야 하는 인체의 순수성 추구의 한 형태이다. 이에겐 스커트, 자켓 등 의복의 길이를 최소화함으로써 면적을 최소화하는 경우와 의복 내의 일부분을 커팅함으로써 면적을 최소화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의복의 면적을 줄여나가다보면 의복 아이템의 경계선이 와해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예를 들면 블라우스의 면적을 점점 줄여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꼭 가려야 할 부분인 가슴부분만 남게 되는데 이 때는 블라우스라기보다는 브래지어라고 해야 적절할런지도 모른다. 결국 이러한 면적의 최소화·극소화는 꼭 필요한 부분, 즉 사회적으로 노출이 허용되지 않는 부분만을 가린 최소의 은폐로 이어지고 이의 극한은 나체라 볼 수 있다.

디테일의 최소화는 최소표현이 그 당시 패션의 시대적·보편적 양식으로 자리했었던 60년대의 칼라나 슬리브가 생략된 아주 단순한 형태의 원피스 등에서 볼 수 있다.

패턴의 최소화는 자연이나 실체를 그대로 묘사한 패턴보다는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패턴이 더욱 생략되고 최소화된 이미지를 전달하듯이, 패턴의 수가 많은 의복보다는 적은 의복이, 나아가 패턴이 있는 의복보다는 없는 무지의 직물로 구성된 의복이 더 표현을 최소화하고 단순한 이미지를 전

달한다.

다) 색채에 의한 최소표현기법

색채에 의한 최소표현기법은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원색, 무채색, 자연색 등의 사용을 의미하며 양적인 면에 있어서는 의복의 한 아이템 내에서, 그리고 착용시 각 아이템 간의 조합에서 단일색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모자, 핸드백, 구두 등의 단품들까지 모두 한가지 색으로 통일된다면 더욱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요즈음 들어 한가지 색상만으로 이루어진 컬렉션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한 예가 될 수 있다.

라) 재질에 의한 최소표현기법

재질에 의한 최소표현기법이란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단순한 재질의 직물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양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인체에 밀착되는 소재에 의해 인체의 외곽선을 그대로 드러내는 경우와 투명한 소재에 의해 인체의 자연스러운 곡선과 피부표면을 비쳐보이게 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② 제작과정에 의한 최소표현기법

의복에 있어 제작과정이란 일정한 디자인에 따른 재단·봉제의 과정과 벨트, 단추, 악세서리 등을 통한 장식의 과정을 생각할 수 있다.

가) 재단에 의한 최소표현기법

재단에 의한 최소표현기법이란 복잡한 재단과정을 거치지 않고 재단과정을 최소화함으로써 절제된 표현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봉제에 의한 최소표현기법

봉제에 의한 최소표현기법이란 봉제과정을 최소화한 단순한 형태로 최소표현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 장식에 의한 최소표현기법

의복에 있어 장식과정이란 봉제과정 후의 벨트, 단추 등의 부착, 그 밖에 각종 악세서리의 착용 등을 의미하며 장식에 의한 최소표현기법이란 이러한 과정의 절제와 생략을 의미한다.

<표 2> 최소표현 복식의 조형성

		질	양
디자인 요소에 의한 최소표현기법	선	· 인체를 따라 흐르는 완만한 곡선 · 직선·사선 등 단순한 기하학적인 선	· 내부구조선의 절제
	형	· 단순한 기하학적 도형, 완만한 곡선으로 이루어진 도형 · 단순한 디테일 · 패턴의 최소 : 기하학적인 패턴	· 면적의 최소(길이에 의한 최소, 단순한 기하학적 커팅에 의한 최소) → 아이템의 전환 → 최소의 은폐 · 디테일의 생략 · 패턴의 최소 : 패턴 수의 절제 → 무지
	색채	원색, 무채색, 자연색	단 색
	재질	단순한 재질	밀착, 투명
제작과정에 의한 최소표현기법	재단	최소의 재단(예 : 튜브(tube)드레스, 밴디지(bandage)드레스)	
	봉제	최소의 봉제(예 : 사롱(sarong)타입, 랩 어라운드(wrap around)타입)	
	장식	최소의 장식, 무장식(벨트·단추·악세서리 등의 생략)	
제작기법에 의한 최소표현기법		비관계적 구성 : 단일한 구성, 반복법	

2) 내적 의미

앞 항에서 현대미술의 동향과 마찬가지로 복식에 있어서도 순수성과 기능성을 지향한 흐름이 20세기로부터 전개되었다고 하였는데 복식의 현대성으로서의 '순수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복식에 최소표현이 태동되었던 시기인 20세기 초의 복식을 더 잘 이해하게 함으로써 최소표현 복식의 근원적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순수(pure)'란 국어사전³¹⁾에 의하면 '첫째, [그 자체에] 전혀 이질적인 것(잡것)의 섞임이 없음, 둘째, [마음 속에] 사사로운 욕심이나 사념(邪念) 따위의 딴 마음이 없음'으로 정의되어 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미술에서 순수성의 추구란 미술의 형태, 색채 등 조형요소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환원시켜 그 본질을 추

구하는 것을 뜻하며 그 어떠한 상징성이나 의미가 부여되지 않음을 지칭한다.

Milbank는 그의 저서 'Couture'³²⁾에서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들을 선구자(The Founders), 예술가(The Artists), 순수주의자(The Purists), 흥미주의자(The Entertainers), 파도자(The Extravagants), 구조주의자(The Architects), 사실주의자(The Realists) 등의 7범주로 구분하고, 순수주의자에 대해 이들은 인체 위에 특정한 구조를 부과시키기보다는 인체를 그대로 표현해 주는 유연한 소재와 라인으로 흐르는 듯한 전체적인 외관을 중시한다고 하였다.

박혜원³³⁾은 복식에서의 순수성이란 평면적, 고정적 요소의 추방과 장식 요소의 부정으로 인한 인공적 실루엣의 제거를 뜻하며 따라서 복식조형에 있어서 순수성의 추구란 평면적, 고정적 요소

31) Ibid., p.2013.

32) Milbank, C. R., 『Couture : The Great Designers』, (New York : Stewart, Tabori & Chang Inc., 1985), p.8~9.

33) 박혜원, "Paul Poiret의 모더니즘",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7. p.viii, 8.

의 추방과 장식적, 수공예적 요소의 부정으로 되어 움직임에 따른 다이나믹한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인공적 실루엣을 추방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럼 여기서 복식에서의 순수성을 정의내려 보기 위해 앞에서 언급한 미니멀리즘 미술에서 추구하였던 순수성의 구체적 의미와 비교하여 논해 보고자 한다. 미니멀 아트에서 순수성의 의미는 비재현적, 비대상적 즉 개념적이며 표현적 금욕성, 제작의 최소화를 통해 실재로서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를 복식에 적용시켜 생각해보면, 비재현적, 비대상적이란 인체를 재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인체를 전제로 하는 복식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의 인체의 재현은 불가피하므로 이는 인체의 과장을 위한 인위적인 구조선의 절제로 해석할 수 있으며 표현적 금욕성, 제작의 최소화란 재단, 봉제, 장식 등의 인위적인 제작과정을 최소화하여 인체의 왜곡이나 과장된 표현을 제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복식에서 순수성의 추구란 인위적인 실루엣과 구조선을 거부하고 장식을 제거함으로써 인체의 왜곡과 과장에서 벗어나 인체를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선으로 인체를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인체 우선형의 추구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최소표현 지향의 태동은 복식에서 순수성의 추구하고 그 맥락을 같이하며, 복식에 있어 점차로 단순하고 장식이 배제된 최소표현의 기법을 사용하게 된 것은 그 단순한 형태나 무장식성으로 인하여 활동에 편리하며 기계생산에 의한 대량생산체제에 부합되는 등 실용적이고 합목적적인 가능성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최소표현 복식의 태동은 이렇듯 기능적, 실용적 목적을 위한 단순성의 추구에서 비롯되었으며 60년대에 와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났던 미니멀리즘과 때를 같이하여 본격적으로 시도되기에 이르렀다.

젊음과 자유를 향한 열망이 강했던 시기인 60년대의 사회분위기는 라이크라 등의 가볍고 신축성

있는 소재를 이용해 의복을 피부에 말착시킴으로써 인체를 그대로 드러내는 자유롭고 경쾌한 복식을 시도하게 하였고 이 시기 복식의 주된 특징의 하나인 인체의 획기적인 노출은 자연스러운 인체미를 중시하고자 하는 복식의 순수성의 추구가 한결음 더 나아가 인체 자체를 소재로 받아들여 인체의 본질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인 인체의 순수성의 추구로 이어진 것을 의미한다.

80년대 말 이후 90년대 초에 이르러서 최소표현 기법의 복식은 단순화, 최소화의 극치에 달함으로써 최대의 노출을 통한 에로틱한 표현으로까지 나아간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20세기 이전까지의 복잡·과중한 옷에 억압, 구속되었던 인체를 의복에서 해방시키고 자연스러운 인체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복식의 순수성의 추구가 60년대 이후, 젊음과 자유를 갈망하는 개방적 사회 분위기와 잘 부합되어 인체의 과감한 노출로 이어지게 되었고 인체의 왜곡과 과장에서 벗어나 인체 그 자체의 순수성을 추구하고려는 목적에서 나온 인체의 자연스러운 노출이 에로틱한 인체 그 자체에 시선을 집중시킴으로서 최대의 에로틱한 표현으로까지 나아가게 되었다.

Ⅲ. 20세기 이후 패션에 나타난 최소표현 기법의 실증적 고찰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20세기 초 조형예술에서의 '순수성의 지향'과 때를 같이하여 나타난 복식에서의 단순성, 순수성의 추구는 최소표현 지향의 태동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20세기 이후부터 최소표현기법이 본격적으로 시도된 1960년대 이전 즉 1950년대까지 패션의 최소표현 지향의 역사적 흐름과 1960년대 이후부터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최소표현기법을 실증적인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1900년대~1950년대 패션에 있어 최소 표현 지향의 역사적 흐름

19세기 후반 이래 여성의 사회참여와 책임의 증가로 여성들의 복식이 자유로워지고 있었으나 실제로 편안한 의복을 입게 된 시기는 20세기 초부터였다. 20세기 초에는, 패션에서 특정 부위의 성감대에 시선을 집중시키기보다는 끊어지지 않는 유연한 라인으로 형성된 전체적인 외관을 중시하기 시작했다.³⁴⁾ 다시 말하면 유방을 강조한 브래지어나 즐라맨 허리, 엉덩이의 강조 등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자연스러운 선을 중시하였다.

현대복식은 과거의 과잉 장식성에서 벗어나 인체의 자연미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실용성과 미를 조화하면서 변화를 거듭하여 왔다. 복식에서의 모더니즘은 Paul Poiret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는데 그는 오랜 동안 인체를 구속하였던 코르셋을 제거하여 인체에 자유와 활동적 가능성을 부여하였다. 뿐만 아



(그림 4) Poiret의 최소표현
Poiret, 낮과 밤, 1924

니라 아르누보 시대의 부를 과시하는 과도한 치장과 장식에서 벗어나, 복식의 순수성과 평면성을 구가하였고, 실루엣이나 모티브의 기하학적 단순성은 기계생산에 의한 기성복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³⁵⁾ (그림 4)

Milbank는 그의 저서 'Couture'³⁶⁾에서 복식에서 최소표현을 추구한 순수주의자들(purists)로 Chanel, Jean Patou, Molyneux, Grès, Vionnet, Mainbocher, Valentina, Halston, Sonia Rykiel 등을 들고 있다.

1920년대 Chanel은 복식에서 장식을 배제시키고 한층 더 단순함을 추구함으로써 최소표현을 시도하였다. Chanel은 움직이기 편리하고 건강하게 보이는 훌륭한 수트와 드레스를 만들었으며, 저지를 즐겨 사용했는데, 그 위에 어떤 구조를 피하고 인체를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선의 의복을 제작하였다.³⁷⁾ 본능적으로 요구되는 것을 숨김없이 그대로 표현함으로써, 옷에서 자유로움과 실용성, 기능성을 단순한 조형으로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상철학은 바우하우스(Bauhaus)운동의 목적 부합정신 및 선과 장식의 엄격한 간결성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저지나 니트 등 유연한 소재는 다아트 등의 인위적인 구조선을 넣지 않아도 인체의 굴곡을 그대로 표현해 주므로 20세기 초 인위적인 실루엣과 고정적 요소를 제거하고 복식의 순수성을 추구하고자 했던 디자이너들에게 애용되었다. 저지는 1920년대에 등장하였는데 소재와 직물의 발달은 복식의 현대성으로의 이행에 빼놓을 수 없는 요건임을 알 수 있다. (그림 5)

바이어스 재단으로 유명한 Vionnet는 Chanel보다도 훨씬 더 유연한 직물을 사용하여, 그 당시 코르셋과 과도한 속옷에서 해방된 여성들의 옷을 디자인하였다. '드레이프의 여왕'이라 불리었던

34) Milbank, C.R., op. cit., p.118.

35) 김민자, "아르데코(Art Deco)양식과 Paul Poiret의 의상 디자인", 「생활과학 연구지」, 13, 1988, p.66.

36) Milbank, C. R., op. cit., p.8.

37) Ibid, p.119.



(그림 5) Chanel의 최소표현

그녀는 부드럽고 차분히 몸에 감겨 여성의 체형과 움직임에 따라 울동적으로 변화하는 드레스를 만들어서 많은 여성을 매혹시켰다.

그 후로 라인은 더 길어졌다. 부드러운 천을 모델의 어깨에 걸쳐 드레이프시키면서 즉흥적으로 의상을 만드는 마술사적인 재능을 갖고 있었던³⁸⁾ Patou는 더 긴 길이의 스커트를 발표하였고, 20년대 롱스커트의 유행은 그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심플하고 활동적인 그의 작품들은 미국의 바이어들 사이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 그는 Chanel, Molyneux와 함께 20년대 모드의 리더로 부상하였다.

그 외에도 Augustabernard, Molyneux, Valentina는 특별한 장식을 제거하여 가느다란 실루엣을 강조하였고, Madam Grès는 저지를 드레이프 되게 함으로써 고전적인 짧은 실루엣을 추구하였다.

2. 1960년대~1990년대 패션에 있어 최소 표현기법의 분석

복식의 단순함은 1960년대에 그 절정에 달했는데 이 시기에는 과거 어느 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없던 극도로 단순한 형태의 의상들이 등장했다. André Courrèges는 ‘패션에 있어서의 ‘Le Corbusier’라고 불리울 만큼 기능주의에 기초하여 극도로 단순한 형태의 의상을 디자인하였다.

이 시기 복식의 또 다른 큰 특징으로 노출의 경향을 들 수 있다. Courrèges의 무릎 위 3인치의 미니스커트, Yves Saint Laurent의 속이 흰히 비치는 씨 드루(See-Through) 블라우스와 바다 스타킹(Body Stocking), Rudi Gernreich의 토폴리스(Topless) 수영복(그림 6) 등의 획기적인 노출은 복식 조형의 고정적인 관념에서 탈피하여, 인간의 자연스런 육체를 그대로 복식으로 받아들여려는 시도로써 볼 수 있다.



(그림 6) Rudi Gernreich의 최소표현, 1960년대 중반

38) 김중복, 「세계 패션 디자이너 131인의 패션철학과 작품세계」, (서울 : 시대, 1984), p.46.

또한 Courrèges의 뉴-바디(New-Body)는 셀로판과 연결된 금속고리로 독창적인 인체의 노출을 시도하였는데 이는 인체 자체를 오브제로 보고 그 위에 금속고리로 장식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구속된 인체와 과일 장식을 통해 복식의 조형미를 창출하였던 근대복식에 반기를 들고 인체의 자연미를 살리려는 현대복식이 한걸음 더 나아가 자연스런 인체 그 자체를 복식의 원형(圓形)으로 받아들여려는 인간 자유의지의 표출이라 볼 수 있다.

소년같이 마른 인체에 매혹을 느꼈던 60년대에는, 슈미즈 형태가 허리선 없는 쉬드(sheath)로 변하였고 그 시기에 복식의 최소표현인 미니멀리즘을 추구한 대표적 디자이너였던 Halston은 단순하고 흐르는 듯한 우아한 옷을 만들기 위해 내부구조를 피하였다.³⁹⁾ 그가 만든 세련되고 우아한 뉴욕적 감각의, 단순하게 생략된 의복은 상류사회 멋쟁이 엘리트들의 취향에 잘 맞았다. Halston Look은 유럽의 절충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미니멀 아트와 개념 아트의 원리에 근거한 것으로 보였다.⁴⁰⁾

이 외에도 복식에 있어 최소표현을 시도했던 디자이너로는 Zoran을 들 수 있다. 그는 대부분의 의복을 사각형으로 단순하게 재단하고 가능한 한 슬기를 적게하여 아름다운 천을 쓸데없는 조각으로 절단하기를 거부하였으며, 의복의 불필요한 디테일을 제거했다.

단순한 형태, 장식 및 디테일의 생략, 최소의 은폐를 통한 최대의 노출 등으로 나타나는 복식의 최소표현은 현대 산업사회의 대량생산체제와 개방적 속성과 잘 부합되며 특히 여성의 취업률 증가에 따른 기능적 여성복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7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 그 맥을 유지하고 있다. 오히려 90년대에 들어서는 60년대를 능가하는 강한

추세로 복식의 단순화, 기능화, 과도한 노출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디자이너 외에도 최근에 최소표현의 복식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디자이너로는 Betsey Johnson, John Anthony, Giorgio Armani, Calvin Klein, Azzedine Alaïa(그림 7) 등이 있다.



(그림 7) Azzedine Alaïa의 최소표현

‘육체와 패션은 동반자다’라는 패션철학을 가진 Betsey Johnson은 항상 신비스런 여체를 자연 그대로 표현하여 육체의 해방으로 패션을 창조하였다. 최근에 유행되는 바디 컨셔스(body conscious)라인도 일찌기 인체를 의식한 Johnson의 작품에서 연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녀의 작품은 항상 몸과 함께 움직이는 기능적인 옷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또한 Johnson은 항상 신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넘쳐 있었는데 속옷과 같은 란제리 드레스, 수영복과 같은 베이딩 수트 드레스, 댄서가 입는 레오타드와 같은 기능적인 드레스를 발표하여⁴¹⁾ 의복을 통한 구속과 억압

39) Milbank, C. R., op. cit., p.119.

40) McDowell, C., 『McDowell's Directory of Twentieth Century Fashion』, (London : Frederick Muller, 1984), p.152.

41) 김종복, op. cit., p.134.

에서 인체를 해방시킨 최소표현을 지향한 디자이너이다.

이 외에도 기능성과 심플리티의 상징인 Giorgio Armani는 순수하고 단순한 기본적인 의복으로 돌아가 레이어(layer)의 은폐를 버리고 대담하고 현대적이며 우아한 실루엣을 드러내는 의복을 디자인했다.⁴²⁾

최근 Vogue지, Elle지, Collezioni지 등에서 Calvin Klein과 Azzedine Alaïa가 미니멀리스트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Calvin Klein의 주로 천연섬유를 이용한 기본적이고 안정된 스타일의 의복은 단순하고 캐주얼한 감각을 느끼게 하고 Azzedine Alaïa의 몸에 딱 맞는 작은 검정색 드레스는 ‘모든 패션의 기초는 신체이다’라는 그의 신념에서 나온 것이다.⁴³⁾

여기서 한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는데 Azzedine Alaïa와 같이 인체를 그대로 드러내는 신축성 있는 소재를 주로 사용하여 에로티시즘적인 표현을 하는 디자이너들을 과연 미니멀리스트라 칭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니멀리즘은 이미지의 표현을 절제하여 무감각, 무표정하고 객관적인 조형성을 창출하는 것인데 이들의 작품에는 에로티시즘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미니멀리스트라기보다는 최소표현을 추구하는 디자이너들이라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즉, 미니멀리즘과 최소표현에 있어 최소한의 조형수단과 최소한의 제작과정을 거쳐서 단순성을 추구하는 것은 공통적이거나 이미지 표현에 있어서는 차이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 둘의 상관관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3>

<표 3> 최소표현 복식과 미니멀리즘 복식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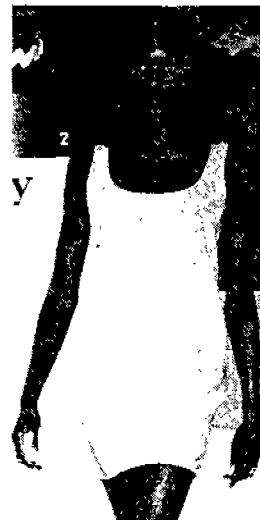
복식의 최소표현	
질	양
미니멀리즘 복식	

이상으로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최소표현 복식의 흐름을 디자이너들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 보았으며, 그 내용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앞에서 최소표현 복식의 조형성을 디자인 요소에 의한 최소표현기법과 제작과정에 의한 최소표현기법, 제작기법에 의한 최소표현기법으로 세분하여 살펴보았 듯이 다음에서는 1960년대 이후 최근까지의 최소표현기법의 복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디자인 요소에 의한 최소표현기법

① 선에 의한 최소표현기법

(그림 8)은 90년 Calvin Klein의 작품이다. 이



(그림 8) 선에 의한 최소표현, Calvin Klein, 1990.

42) Mulvagh, Jane, 『Vogue History of 20th Century Fashion』, (New York : Viking, 1988), p.349.

43) McDowell, op. cit., p.82.

〈표 4〉 20세기 이후 최소표현 복식의 역사적 흐름

내적 의미	외적 형식	
복식의 순수성 → 인체의 본질 추구	울렛의 제거, 인체의 왜곡·과장·과잉장식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인체미 추구 : Paul Poiret	
	인체에 순응하는 선, 간결성, 단순성, 합리적 기능성, 저지의 사용 : Chanel	시
	인체형과 움직임에 따른 울동감, 바이어스 재단법, 유연한 직물, 드레이퍼리 : Vionnet	간
	더 가늘고 긴, 몸에 딱 맞는 라인으로 인체의 선을 더욱 드러냄 : Mainbocher	적
	우아한 인체의 노출(미니 스커트, 씨드루 블라우스, 바디 스타킹, 토폴리스 수영복) : Courrèges, Quant, Yves Saint Laurent, Rudi Gernreich,	상
	단순하고 호르는 듯한 우아한 옷, 내부구조선의 제거, 단순한 재단과 솔기의 거부 : Halston, Zoran	황
	인체에 바짝 달라붙는 소재(니트)의 사용, 꼭 끼는 라인 : Sonia Ryckiel	의
	단순하고 캐주얼한 감각, 순수하고 현대적이며 기능적인 옷 : Calvin Klein, Giorgio Armani	형
	바디 컨셔스 라인, 신축성 있는 소재, 자유롭고 경쾌한 분위기, 예로틱한 표현 : Azzdine Alaïa	식 변 화

는 인체에 어떤 왜곡도 가하지 않고 거의 수직선으로 내려오는 H실루엣으로서 내부에 일체의 구조선이나 장식선도 가지고 있지 않다. 즉 질적인 면에서 또 양적인 면에서 선이 최소화된 대표적인 작품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칼라·슬리이브·주머니 등 일체의 디테일이 생략되어 있고 무패턴의 흰색 소재에 벨트, 단추 등 모든 장식이 배제되어 있어 단순함이 극치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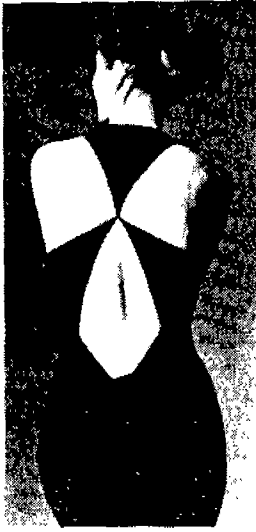
② 형에 의한 최소표현기법

Sloat는 1967년에 브라운 리넨의 사각형 탑(top)과 매우 짧은 A라인 스커트로 이루어진 투피스를 발표하였는데 그러한 단순한 기하학적 도형은 매우 간결한 이미지를 전달해 준다.

양적인 측면에서 형의 최소는 면적을 최소화할 의미하는데 이에겐 길이에 의한 최소가 있을 수

있다. 그 예로 1994년에 Ozbek이 발표한 일체의 내부구조선이나 장식이 배제된 단순한 구성의 아슬아슬하리만큼 짧은 미니원피스를 들 수 있는데 그것은 유연한 소재에 의해 인체를 더욱 자연스럽게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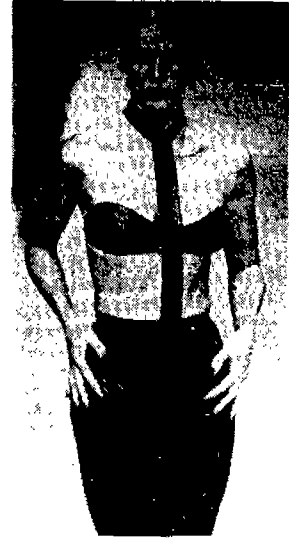
그 외에도 커팅에 의한 방법이 있다. 이 때 커팅선은 당연히 심플한 기하학적인 선이어야만 단순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다. (그림 9-1)은 Geoffrey Beene의 92년 가을 콜렉션 작품인데 심플하고 세련된 기하학적인 선의 커팅으로 등을 노출하여 인체의 표면자체를 복식의 소재로 받아들임으로써 인체의 순수성을 추구하였다. 또한 단일한 검정색의 신축성 있는 소재가 인체에 말착되어 직접적인 노출을 시도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인체의 곡선을 순수하게 드러내고 있다.



(1) Geoffrey Beene, 1992



(2) Katharine Hamnett, 1992/ 93



(3) Mariot-Chanet, 1991

(그림 9) 형에 의한 최소표현 -면적의 생략-

길이나 커팅에 의한 면적의 최소화 작업을 더 진행시키면 극도의 생략으로 인해 의복 아이템의 경계선마저도 와해시킬 수 있다. (그림 9-2)는 자켓의 면적을 극소화하여 가슴을 겨우 가릴 정도까지 최소화된 자켓이며, (그림 9-3)은 목둘레와 가슴 중앙을 지나는 세로선의 밴드 그리고 가슴에 브래지어의 캡을 연상케 하는 극소의 은폐가 상의를 이루고 있다.

(그림 10)은 브래지어 형태의 상의와 핫팬츠의 조합으로서 최소화된 상의와 최소화된 하의의 대표적인 예라 볼 수 있다. 원래 최소표현이란 최소의 조형수단과 최소의 제작과정을 거쳐 단순성과 순수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소의 은폐는 최대의 노출을 의미하고 이러한 노출을 통해 에로틱한 인체 자체에 시선을 집중시키게 됨으로써 단순하고 간결한 이미지에서 더 나아가 에로틱한 분위기까지 느끼게 한다. 이는 타조형예술과 달리 복식만이 갖는 특수성이라 할 수 있다.

③ 색채에 의한 최소표현기법

90년 Vogue지에 'little black dress'라는 제목 하에 실린 디테일과 장식이 생략된 심플한 검정색



(그림 10) 형에 의한 최소표현 -최소의 은폐-
Azzedine Alaïa, 1991

원피스를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는 검정색 선그라스와 핸드백, 검정색 스타킹 등 단품 모두를 검정색 일색으로 통일함으로써 그 효과를 한층 더해준다.

④ 재질에 의한 최소표현기법

(그림 11)은 Gianni Versace의 소매없는 실크

크레이프 드레스로서 인체의 곡선을 왜곡시키거나 과장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며 일체의 장식이나 군더더기가 없는 단순하고 명쾌한 현대적 이미지를 표현한다.

이러한 밀착의 방법 이외에 투명한 재질에 의해 인체의 외곽선과 표면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역시 최소표현의 일종이다. 1992년에 Helmut Lang은 상체와 하체 모두에 있어 가장 최소한의 부분만 가리고 나머지 부분은 흰히 비치는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인체를 그대로 표현해 주었는데 이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그림 11) 재질에 의한 최소표현
-밀착에 의한 최소표현-
Giani Versace, 1992

2) 제작과정에 의한 최소표현기법

① 재단·봉제과정에 의한 최소표현기법

재단·봉제과정의 최소화로는 밴디지(bandage) 드레스와 같은 끈 혹은 테이프로만 구성된 옷을 생각할 수 있는데, 좁고 넓은 끈만으로 단순한 제작과정을 거쳐 옷을 만들어 명성을 얻게 된 독특한 디자이너로 Hervé Léger가 있다. 1970년에 Courrèges가 발표한 (그림 12) 역시 그 좋은 예로서 브래지어와 비슷한 최소화된 상의와 사각형의



(그림 12) 제작과정에 의한 최소표현
-봉제과정에 의한 최소표현-
Courrèges, 1970

천으로 이루어진 스커트는 단순한 재단과 봉제과정을 거쳐 단순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② 장식과정에 의한 최소표현기법

장식과정에 의한 최소표현기법이란 벨트, 단추, 악세서리 등 장식적 요소의 생략을 통한 최소표현을 의미하는데 이는 60년대에 시대적·보편적 양식으로 자리잡기도 했었다. 단순, 간결미와 경쾌함을 한층 증가시키는 형식이다.

3. 제작기법에 의한 최소표현기법

최소의 표현을 위한 대표적인 제작기법으로는 비관계적 구성방식을 들 수 있다. 비관계적 구성방식이란 화면전체를 단일하게 구성하거나 동일단위를 반복함으로써 화면의 이미지를 무표정하고 무감각하게 하여 단조로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로는 동일한 사각의 금속편을 반복하여 만든 Pierre Cardin의 원피스가 있으며 (그림 13), 반복되는 동일 단위에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그림 13) 제작기법에 의한 최소표현
-반복에 의한 최소표현- Pierre Cardin, 1970

IV. 결 론

20세기에 들어와서 그 이전까지의 복잡·과중한 의복에서 벗어나 자연스런 인체미를 추구하고자 했던 복식에서의 순수성의 추구가 60년대에 와서는 본격적인 최소표현의 시도로 이어졌다. 1960년대의 젊음과 자유를 구가하던 개방적 사회 분위기는 인체의 과감한 노출 등을 통하여 인체 자체의 본질 추구 즉 인체의 순수성을 추구하게 되었는데 이는 인체의 왜곡과 과장에서 벗어나 인체의 순수성을 추구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인체의 노출이 에로틱한 인체 그 자체에 시선을 집중시킴으로써 에로틱한 분위기의 표현으로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60년대보다 한층 더 개방적인 사회 분위기라 할 수 있는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이러한 최소표현이 더욱 더 극단에 이르게 되었다.

본 연구는 복식의 모더니즘의 일면을 이해하기 위하여 현대패션에 있어 조형적 특징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최소표현 복식의 조형성과 그것이 지니는 내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 연구로서, 조형예술 분야에서 최소표현기법을 적용한 미니멀리

즘을 그 기초로 삼았다. 그 결과 미니멀리즘과 복식에서의 최소표현의 차이점을 발견함으로써 타 조형예술 분야와 다른 복식의 특수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즉 미술의 미니멀리즘과 복식의 최소표현에 있어 최소한의 조형수단과 최소한의 제작 과정을 거쳐서 단순성을 추구하는 것은 공통점이나 이미지 표현에 있어서는 차이를 지닌다.

미니멀리즘은 단순성, 명료성 그리고 비관계적 구성을 통한 무표정, 무감각한 조형성을 창출함으로써 이미지의 표현을 절제하고 최소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나 복식에서는 직물이라는 조형재료 이외에 인체라는 소재가 필연적으로 부가되므로 조형요소와 제작과정을 최소화하여 단순화, 최소화를 실현할수록 인체를 그대로 드러내게 되어 인체의 본질인 에로티시즘이 표현된다. 다시말해서 미니멀리즘의 내적 의미로서의 순수성의 추구는 표현의 절제·최소화를 의미하나 최소표현 복식에서의 순수성의 추구는 인체의 본질에 대한 추구로서 에로티시즘적인 표현이 되고 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니멀리즘 복식을 포함한 최소표현 복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범위가 다소 포괄적이어서 어느 한 요인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되지 못한 것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후속 연구로 미니멀리즘에만 촛점을 맞춘 미니멀리즘 복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겠으며 이를 본 논문의 결과와 비교·분석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되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계간 미술편, 「현대미술비평 30선」, (서울: 중앙일보사, 1981)
- 김경미, “20세기 추상으로 가는 움직임”, 서울 대학원 신문, 1994. 9.28.
- 김민자, “아르데코(Art Deco) 양식과 Paul Poiret의 의상 디자인”, 「생활과학연구지」, 13, 1988.
- 김은덕, 현대패션에 나타난 최소표현기법에 관

- 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5.
- 김종복, 「세계 패션 디자이너 131인의 패션철학과 작품세계」, (서울 : 시대, 1984)
 - 김종원, “미적체험의 본질 연구-현상학과 존재론을 통한 예비적 고찰-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4.
 - 박명희, “1980년대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1991.
 - 박상규, 「미학과 현상학」, (서울 : 문예출판사, 1991)
 - 박혜원, “Paul Poiret의 모더니즘”,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7.
 - 신기철·신용철 편저, 「새우리말 큰사전」, 삼성출판사, 1991.
 - 월간미술편, 「세계미술용어사전」, (서울 : 중앙일보사, 1992)
 - 이은영, 「복식 의장학」, (서울 : 교문사, 1983)
 - 조규화, 「복식미학」, (서울 : 수학사, 1989)
 - 진성모, “FASHION DESIGN의 조형적 특성과 그 실현 가능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1987.
 - 최현숙, “Rudi Gernreich의 작품에 나타난 시대정신”, 「한국의류학회지」, 16(4), 1992.
 - 하민수, “미니멀리즘(Minimalism)의 의미와 그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1985.
 - 홍덕률, “산업화와 현대사회”, 고영복 편저, 「현대사회론」, (서울 : 사회문화연구소, 1994)
 - Amy De La Haye, 「Fashion Source Book」, (London : Macdonald Orbis, 1988)
 - Bonnefanten museum 카달로그, “Robert Mangold-Recent Works-”, 1989.
 - Charles-Roux, Edmonde, 「CHANEL and Her World」, (Paris : The Vendome Press, 1981)
 - 「Collezioni」, 1980~1994.
 - Connikie, Yvonne, 「Fashions of A Decade : The 1960's」, (London : B.T. Batsford Ltd., 1990)
 - David Bond, 「The Guinness Guide To Twentieth Century Fashion」, 정현숙(역), 「20세기 패션」, (서울 : 경춘사, 1992)
 - Delong, M., 「The Way We Look」, (Iowa : Iowa State University Press, 1987)
 - 「Elle」, 1980~1994.
 - Howell, G., 「In Vogue」, (New York : Allenlane, 1979)
 - John Gage Allee, 「Webster's Dictionary」, Ottenheimer Publishers, Inc.
 - Kenneth Baker, 「Minimalism」, (New York : Abbeville Press, 1988)
 - Lambert, R., 이석우(역), 「20세기 미술사」, (서울 : 열화당, 1990)
 - Lucie E. Smith, 임영방, 김춘일(역), 「전후현대미술」, (서울 : 장학사, 1981)
 - Lucie E. Smith, 「Late Modern」, 임영방, 김춘일(역), 「전후미술」, (서울 : 세운문화사, 1977)
 - 「Marie Claire」, 1985~1994.
 - Marshall Berman, 윤호병·이만식(역), 「현대성의 경험」, (서울 : 현대미학사, 1994)
 - McDowell, Colin, 「McDowell's Directory of Twentieth Century Fashion」, (London : Frederick Muller, 1984)
 - Milbank, Caroline Rennolds, 「Couture : The Great Designers」, (New York : Stewart, Tabori & Chang Inc., 1985)
 - Mulvagh, Jane, 「Vogue History of 20th Century Fashion」, (New York : Viking, 1988)
 - Rudolf Arnheim, 「미술과 시지각」, (서울 : 기린원, 1988)
 - Sidney Geist, Brancusi, 「A Study of the Sculpture」, (N.Y. : Hacker Art Books, 1983)
 - Sparke, P., 「Design Source Book」, (London : Macdonald Orbis, 1985)
 - Suzi Gablik, “Minimalism”, 「Concept of

Modern Art」ed. Nikos Stangos, (London : Thames and Hudson, 1985)

• 「The New Oxford Illustrated Dictionary」,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 「Vogue」, 1960~1994.

ABSTRACT

A Study on Minimal Expression Techniques Depicted in Modern Fashion Design

Kim, Eundeok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reatise is to study external form and internal meaning of minimal expression fashion which appeared as a major stream in modern fashion trends to understand one aspect of modernism in fashion and also to gain insight into internal value of human beings through fashion.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ly, minimalism is a trend in art attempting to seek essence of the object by presenting simple and disciplined expressions by minimal formative means and minimal production process.

Secondly, minimal expression in fashion means seeking simplicity and purity by using minimum design elements and minimal productive process.

Thirdly, external form of minimal expression fashion can be created through application of following minimal expression techniques.

1. Minimal expression techniques in terms of line mean smooth curve flowing along body

contours, straight lines of diagonal lines into disciplined silhouette or rendering internal contour lines.

2. Minimal expression techniques in terms of forms mean forms of smooth curves flowing along body or forms with simple geometric forms from qualitative aspects. In terms of volume it means quest for essence of pure body itself by revealing body as it is by minimizing the size of dress or its area and herein is contained using simple geometric pattern or utilizing textiles without any patterns.

3. Minimal expression techniques by colors mean simple colors such as primary colors, colors without clear distinctions or natural colors and in terms of quantity it means quest for one color within one item of dress or combination of each items when getting dressed.

4. Minimal expression techniques in terms of fabrics mean fabrics with simple surface. In terms of quantity it means quest for essence of tight fitting thin textiles to human body or using transparent materials to human body thus exposing body contours as it is.

5. Minimal expression techniques in terms of productive process mean minimizing process of tailoring, sewing or ornamenting and seeking for simplicity and purity.

6. Minimal expression techniques in terms of manufacturing process mean selection of technique for conveying simple image with disciplined simple image.

Fourthly, minimal expression fashion with external expression as mentioned in the above lay body-priority style and its internal meaning can be assumed as quest for essence and purity of human body.